

# 한국의학도서관협회지 발간 50주년을 기립니다

허 선

한림의대 기생충학교실과 의학교육학교실  
제 9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회장

## Congratulation on the Public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Sun Huh

Department of Parasitology and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Chuncheon, Korea  
The 9th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J Korean Med Libr Assoc 2023;50(1,2):1-3]

1978년 3월, 필자는 관악산 캠퍼스에서 의예과 과정을 마치고 연건캠퍼스로 옮겨 의대 본과 과정을 시작하였다. 새벽에 의학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다가 수업에 들어가고, 수업 후에 다시 의학도서관으로 가서 밤 10시쯤 귀가하던 것이 그 당시 일상이었다. 의학도서관에서 논문을 찾아 읽기도 했는데, 생리학 수업에 나온 troponin, tropomyosin 관련 논문을 찾아 복사해서 읽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러니까 의학도서관은 1978년 의대생 시절부터 이후 대학원 과정, 교원 임용 후에 이르기까지 교원으로서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장소였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곳이었다. 의학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가장 혁명적인 사건은 아마도 1980년대 후반 대학원을 다닐 때 MEDLINE

서지 정보를 CD로 검색할 수 있게 되었던 일이 아니었나 한다. Silver Platter에서 제공되는 연도별, 월별 CD를 동시에 넣어서 검색하면 논문의 서지 정보가 확인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해당 논문을 도서관 비치 잡지에서 찾고, 없으면 다시 타 도서관에서 복사본을 찾았다. 1988년도에 한림대학교로 발령받은 후에도 도서관에서 CD로 MEDLINE 정보를 찾을 수 있어 매우 행복했다. 요즘이야 PubMed, PubMed Central, Web of Science, Scopus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연구실이나 집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미국 국립 의학도서관에서 PubMed를 온라인으로 공개한 1996년 이전까지 연구자에게 도서관 방문은 필수였다. 1986년부터 기생충학을 전공하면서 연구를 설계하고 논문을 작성했는데 도서관의 자료가 아니면 불가능했

Received October 1, 2023, Revised October 2, 2023, Accepted November 27, 2023

Corresponding author: Sun Huh

Department of Parasitology and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1 Hallimdaehak-gil, Chuncheon 24252, Korea

Tel: 82-33-248-2652, E-mail: shuh@hallym.ac.kr

Copyright © 2023 The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을 것이다.

또한 필자가 몸담은 한림대학교는 한국의학도서관협회와 인연이 많다. 우선 고 윤덕선 이사장(1921~1996)은 1972~1976년도에 협회장을 역임하면서, 1973년 7월에 ‘의학문헌 색인집(Index Medicus Korea)’이라는 국내 최초의 색인 데이터베이스를 인쇄본으로 발간하는 작업을 지원하였다. 윤 이사장은 1980년 말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MEDLINE 같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당시 한림대 도서관 수서과장인 문명신 선생께 이를 요청하였으나, 대학 도서관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여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업은 그 후 1996년도에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KoreaMed라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실현하여, 최근까지 34만 종의 국내 의학 문헌 데이터베이스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사용, 학술지 열람이 의학도서관이 제공하는 가장 주요한 서비스이지만, 그 외에도 한국 의학도서관협회와 의학 사서가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기여한 바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1996년도 MEDLIS라는 상호대차 시스템을 구축하여 매우 편리하게 도서관 소장 정보를 파악하고 원문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는 의학 사서 자격 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협회 학술지를 통하여 제공한 여러 계량서지학 정보, 최신 동향에 대한 소개는 도서관 서비스 발전뿐 아니라 의학 학술지 발전에도 기여한 보석과 같은 정보이다. 의학 사서는 또한 학술지 편집에 참여하여 원고 편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술지 발전에 기여하였다. 개개 사서가 연구자와 함께 systematic review-meta analysis에 참여하여 공저자로서 의학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였고, 서지정보에 대한 여러 원저도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 (DOAJ)에 우리나라 대사(ambassador)로 참여하여 국제 활동을 통하여 국내지 DOAJ 등재를 지원하고 있다[1]. 필자가 1996년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창립 임원으로 참여하면서, 학술지 공부를 위하여 이 협회지를 도서관에서 찾아보면서 지식을 익혔다. 그 당시는 국가 연구비 지원 기관에서 Science Citation Index (SCI) 등재지에 실린 논문에 대한 우대 정책을 적극 시행하면서 국내 학술지 발간에 위기가 닥

다. 국내지도 SCI 등재를 시도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국내지의 양식과 형식(style and format)부터 국제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절실함에서 의학 분야 편집인부터 움직여 국제 동향을 빠르게 적용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때 협회 학술지에 SCI, Journal Citation Reports, 디지털 라이브러리, 인터넷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새 개념을 접하고 익히는 기회였다. 최근에도 계량서지학 분석, 참고문헌 관리, 학술출판에서 투명성 원칙 등 편집인이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을 계속 발행하고 있어 정보를 익히는 데 도움을 준다.

최근 의학 사서는 업무가 많이 늘고, 기존 인력이 퇴사했을 때 선뜻 새로이 임용하지 못하는 기관이 많다. 13년 동안 동결된 등록금으로 인하여 대학 재정 압박을 받으면서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새 고용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의학 사서의 업무 부담은 매우 과도하다. 앞으로 이 협회지가 발전하려면 투고 원고를 충분히 받아야 하는데 2019년부터는 연 4편 발행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실리는 논문 수준이 매우 높고 전문가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지만, 학술지로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하는 의학 사서 양성이 필요하다. 연구는 업무 중이 아니라 과외 시간에 수행하여야 하므로 쉽지 않다. 특정 집단을 위한 특정 목적의 학술지를 지속하여 발간하는 것은 학문 발전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하다. 50년의 역사를 지닌 이 잡지를 지속하여 발전시키기 위하여 몇 가지 전략을 제안한다.

1. 학술지 누리집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하고 영문으로 제작한다.
2. 전문을 XML로 제작한다[2].
3. 개별 논문에 DOI를 부여하고 Crossref XML을 제작하여 Crossref에 기탁한다. 이 작업은 창간호까지 소급이 필요하다[3].
4.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에 가입하여 논문을 기탁한다[4].
5. Online only 잡지로 발간하여 eISSN을 부여받는다.
6. 창간호부터 과거호의 서지 정보와 초록을 영문으로 제공하면서 전문 PDF를 연결한다.
7. 전문을 도서관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digital archiving으로 제공한다[5].

8. 최소 25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XML로 제작한 뒤 PubMed Central에 등재한다[6].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면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협회에 개인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연회비를 내는 것이므로 이외의 추가 수입 창출이 어렵다. 그렇지만 우선 경비가 적게 드는 일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과거 호에 대한 소급 작업이 어렵다면 앞으로 발행하는 호부터 적용하면서 차차 과거 호까지 넓혀나가면 충분하다.

1982년 졸업 후 42년간의 연구자, 교육자로서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2024년 2월이면 정년을 맞이한다.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1996년부터 28년간 학술지 편집 일을 하면서 의학 사서로부터 참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국내 의학 학술지는 과거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하였고, 이런 발전에 한국의학도서관협회가 기여하였음에 늘 감사한다. 앞으로 학술지 발행 100주년을 맞아 통권 100권을 낼 때까지 꾸준히 학술지를 발간하고 국제적으로 널리 유통되기를 바란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이 꼭 맞는 학술지가 되기를 바라며 통권 50권 발행을 기린다.

## REFERENCES

1. Chang JH. Reflections on 4 years in the role of a Crossref ambassador in Korea. *Science Editing*. 2022;9(1):69-73. <https://doi.org/10.6087/kcse.266>
2. Cho Y. Open-source code to convert Journal Article Tag Suite Extensible Markup Language (JATS XML) to various viewers and other XML types for scholarly journal publishing. *Science Editing*. 2022;9(2):162-168. <https://doi.org/10.6087/kcse.284>
3. Pentz E. Role of Crossref in journal publishing over the next decade. *Science Editing*. 2022;9(1):53-57. <https://doi.org/10.6087/kcse.263>
4. Kim S, Choi H. Status of digital standards, licensing types, and archiving policies in Asian open access journals registered in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Science Editing*. 2019;6(1):41-46. <https://doi.org/10.6087/kcse.154>
5. Huh S. How to archive scholarly journals from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cience Editing*. 2019;6(2):171-174. <https://doi.org/10.6087/kcse.180>
6. Huh S. Marking the inclusion of th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in PubMed Central and strategies to be promoted to a top-tier journal in the nursing category.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22; 28(3):165-168. <https://doi.org/10.4069/kjwhn.2022.08.19>